



광주시립발레단이 지난 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친 발레살롱 콘서트 중, 네 명 발레리나들이 '프레스코'의 환상적인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몸짓만으로...봄, 날아오르다

광주시립발레단 '발레 살롱' 리뷰

단막 발레극 갈라 형식 한무대 정교한 움직임 유려한 곡선 황홀 순백 '롱 튀튀' 아름다움 극대화 10월 '코펠리아' 전막공연 예정

무용수들은 천상의 정원에서 유려한 폴드브라(팔 동작)를 선보였다. 메인 발레리나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이들은 캔버스 속 압화처럼 미동조차 없다. 마법의 벽화를 생동하는 발레로 형상화한 작품, '프레스코'다.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다음 작품 '탈리스만'의 주역이 날아 오르며 화려함을 뽐낸다. 그 뒤로도 '라 바야데르', '코펠리아' 등 총 일곱 작품이 펼쳐졌다. 단막 발레극들을 갈라 형식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날 공연을 일컬어 '발레 살롱'이라 한다.

지난 9일 광주시립발레단이 'Voice of Spring'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였다. '봄'에 걸맞은 작품들 하이라이트를 발휘해 한데 감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러시아 민간문학을 모티브로 창작한 '곰사들이 망아지' 중 '프레스코'로 막이 올랐다. 마술 채찍의 힘으로 벽화 속 네 명 여인들이 살아나 생기 있는 춤을 보여줬는데 네 명 무용수들은 움직임과 멈춤을 반복했다. 정중동(靜中動)의 묘 속에서 극적 긴장과 이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됐다.

이어 정영재가 제안무한 '탈리스만'이 무대에 펼쳐졌다. 바람의 신이 쥐고 있는 부적 '탈리스만'을 훔치기 위해 인간이 님프에게 신을 유혹해줄길 간청하는 앙상블이다. 성하림 발레리나는 흥석형 발레리노를 중심에 두고 화려한 턴을 보여줬다.

예술감독 철학이 가장 돋보인 대목은 '타이스의 명상곡'이었다. 이날 공연을 위해 쥘 마스네의 원곡을 바이올린(박승원), 피아노(이유정) 라이브로 연주했기 때문. MR(배경음악)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바이올린 소품, 독주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작품에는 실제 연주자가 필요했던 것 같다.

남녀 무용수가 모두 착용한 순백의 롱 튀튀(발레스커트)는 부채꼴을 만들며 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다만 단채로 점프를 할 때 바닥 충격음이 크게 들려, 군무 동작시 호흡 방안 등이 필요해 보였다.

캐릭터 댄스(민속무용)가 돋보이는 '라 바야데르' 2막은 전막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작품이었다. 인도의 궁중 남녀 무희가 나와 '전사들의 춤'을 보여줬는데 콩고 드럼을 두드리거나 공중으로 던지는 연출, 과감한 킥 등을 이어갔다.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전개되는 발레는 무용수들의 개별적인 개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라 바야데르'는 인도궁정에서 펼쳐지는 민속무답게 무용수들의 개성을 웃웃이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전사들의 몸짓은 라 바야데르 중 '황금신상의 춤', '앵무새춤'은 물론 '물동이춤' 등 다른 레퍼토리까지 궁극하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코니 씬도 무용수의 심리묘사를 극적으로 표현해 컨템포리한 전개가 돋보였다.

한편 '코펠리아' 3막 중 그랑 파드되가 시작될 때는 잠시 천장을 바라봤다. 기계인형 '코펠리아'의 몸짓을 묘사하는 발레리나의 팔과 다리가 마치 실로 연결되었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마리오네트를 연상하게 하는 강민지 발레리나의 정교한 움직임은 지난해 공연 '지젤'에서 보여준 유려한 곡선 '지젤 라인'과는 다른 색다른 미감을 선사했다.

코펠리아 3막 중 '시간의 춤'도 인상적이었다. 무용수들은 등에 시계태엽을 감은 듯 약속된 동작을 오차 없이 풀어냈다. 백조의 호수 속 '마주르카'처럼 원형으로 발을 구르고 발뒤꿈치를 치는 동작은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한 것이다.

박관우 발레리노 등의 민속적이고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바리에이션과 코다, 피날레는 관객들을 때로시키기에 충분했다. 클라이맥스를 미리 본 덕분에, 10월 예정된 전막 공연 '코펠리아'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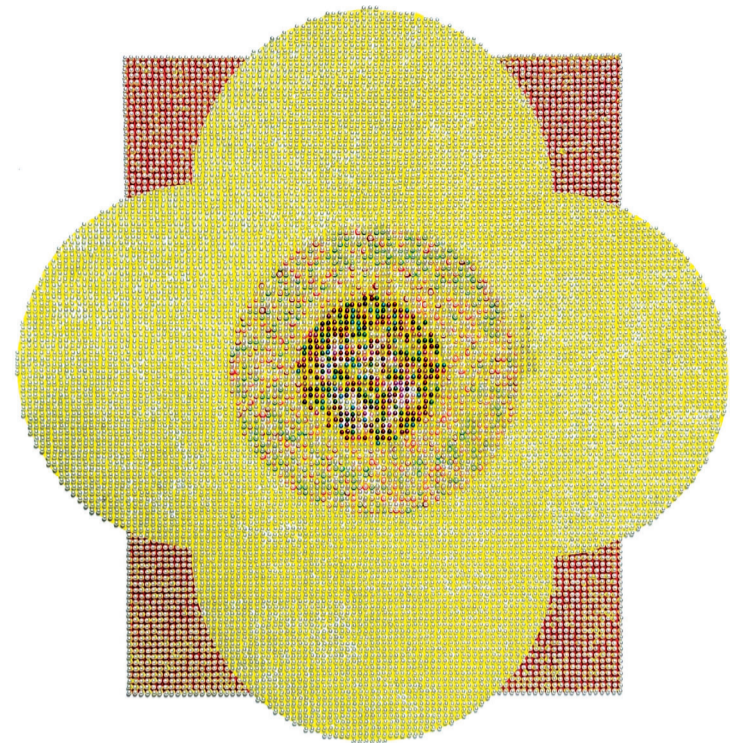
박경숙 예술감독은 "단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매번 감사드립니다"며 "다음 발레 살롱 콘서트를 비롯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담은 5월 공연 'DIVINE',

10월 전막공연 '코펠리아'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코펠리아' 파드되



'질서에 관한 어법'

'핀과 빛'이 만들어낸 파동

김재성 초대전, 28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핀'과 '빛'이 만나면 어떤 조형성과 이미지를 환기할까. '핀'이라는 오브제가 수평의 회색 그림자와 결합돼 회색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금희) 대학역사관 2층에서 진행중인 김재성 작가 초대전이 그것. 오는 28일까지 '2024 질서에 관한 어법-회색 파동(波動)'을 주제로 개최되는 작품전은 일반적인 그림과는 다른 분위기를 발한다.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모두 20여 점.

김 작가는 그동안 예술의 미를 조형적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펼쳐왔다. '핀'이라는 오브제를 매개로 반복 행위를 펼쳐왔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번 시리즈 '질서에 관한 어법'은 '질서'와 '어법'이라는 키워드가 반복과 조형성을 함의한다. 핀은 수직을, 화면 그림자는 수평을 상징하는데, 두개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생성한다. 즉 회색 군집(群集)의 이미지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빛'을 창출하는 것이다.

작가는 핀이 빛과 시선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된 회색 그림자를 조형화함으로써 파동의 효과를 견인한다. 잔물결 같은 파동은 특유의 생성 이미지와 리듬감을 선사한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오늘의 현대인들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사느라 정적이면서도 고요한 시간을 갖기 힘들다"며 "뻑뻑하게 쫓긴 핀들을 바라보면 정중동 이미지와 파동이 치는 듯 확산되는 에너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주소년'의 박경환(왼쪽부터), 이상봉.

〈애프터는 제공〉

모던 포크듀오 '재주소년' 20주년 광주 무대

16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데뷔 20주년을 맞은 모던 포크듀오 '재주소년'이 광주를 찾는다.

재주소년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스무살의 대모험'이 오는 16일 오후 6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박경환, 이상봉으로 이루어진 포크 듀오인 재주소년은 2003년 '꿈, 눈 오던 날, 명륜동'이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이번 공연은 기획사 애프터는이 기획했다.

박경환은 JTBC 싱어게인, 에세이 '소년, 잘 지내' (탑) 출간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상봉은 스튜디오형 뮤지션으로 지내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다시 기타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날 발표한 재주소년의 앨범 'Anthology 2' 수록곡 등으로 꾸렸다.

'페어웰', '마르세유', '명륜동'을 비롯해

'방갈로', '이분단 셋째줄', '굴+굴', '여자의 연어', '비밀소년' 등 개성 있는 곡명들이 이목을 끈다. 이외에도 '두사이입분', '새로운 세계', '눈 오던 날'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앨범명 'Anthology'는 비틀즈의 엔솔러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앨범인 만큼, 자유롭고 유틸 있는 기타 연주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팬들과 함께한 작사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곡, 과감한 트로트, 매니아향 작품, 오래전 녹음했던 데모 등 사연이 담긴 작품들을 로파이한 질감으로 만날 수 있다.

애프터는 리소 팀장은 "이상봉과 박경환 포크 듀오 완전체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20년 전 첫 1집이 나왔을 때의 풋풋함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추억 여행이 될 것이다"며 "영화 '소울메이트'에 수록된 '눈 오던 날' 등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포크 기타만의 감성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시 3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자연과 기물 그리고 소리의 감각

김경록 초대전, 19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살림살이에 쓰이는 여러 기구를 일컬어 기물이라 한다. 요즘에는 살림살이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그 쓰임에 맞게 활용되는 기구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물은 다양한 소리를 품고 있다. 시각적인 미감 외에도 손으로 만졌을 때 전달되는 촉감 등은 기물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기물을 매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19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통장호 장인 김경록의 전시회가 그것.

서울 무형문화재 제26호 이수자이기도 한 소목장 김경록은 이번 전시에서 15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주제인 '사·간·감(時·間·感)'은 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전시의 의미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자연과 기물 사이에서 탄생하는 소리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침터, 놀이기구, '누구나 피아노' 등 자연과 버무린 기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울림을 품고 있다.

'AUDIO DESK'는 단순한 책상이 아닌 시간과 감각을 품은 작품이다. 하나의 책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깎고 두드리고 문지르고 하는 일련의 소리와 감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물로 완성되기까지의 '사이'에는 그렇듯 시간과 감각이 응결돼 있다는 의미다.

'DRESSING TABLE', 'ARTIST'S



DRESSING TABLE(왼쪽), 'ARTIST'S DESK'

DESK'가 주는 감각도 예상치 못했다. 장인이 하나의 기물을 완성하기까지, 그 사이에 생성된 뉴트로 감각은 보는 이에게 소리 외에도 다양한 감각을 추정하고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김 작가는 "물성 자체에서 발현되는 감각은 물론 작업을 하는 중에 들려지는 다양한 소리들, 일테면 두드리거나 사각거리는 소리와 진동 등을 느꼈으면 한다"며 "재료가 작업이라는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생산하는 다채로운 소리와 감각들은 기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

제3자와 계약 시 사전 고지 의무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환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문체부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연합뉴스